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 민 호

#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승 종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9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최 민 호

최민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김   순   은     (인)

부위원장     이   수   영     (인)

위     원     이   승   종     (인)

## 국 문 초 록

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여러 물질적·심리적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왔다. 삶의 질에 대한 인과구조를 밝히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각각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대한 평가)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국 27개 자치구의 주민 27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R 3.4.1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기술통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들은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의 순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중 경제자본 영역에 대한 평가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대립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어느 요소에 선택과 집중을 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은 국가 단위의 조사 뿐 만 아니라 개별 커뮤니티(혹은 지방정부) 단위의 인식조사에서 더욱더 높은 활용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질에 대한 경제자본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집단의 계층의식 수준별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주요어 :** 삶의 질, 웰빙, 지역사회의 자본요인, 주관적 계층의식,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

**학 번 :** 2016 - 24342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제 3 절 연구 방법 .....	4
1. 문헌연구 .....	4
2. 통계분석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	6
1. 삶의 질 .....	6
2. 커뮤니티 웰빙과 Kee의 다차원 모형 .....	10
3. 주관적 계층의식 .....	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7
1.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17
2.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	23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비판적 검토 .....	28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	30
제 1 절 연구 변수 .....	30
1. 종속변수 .....	30
2. 독립변수 .....	31
3. 조절변수 .....	32
4. 통제변수 .....	33
제 2 절 연구 모형 .....	36
제 3 절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	37

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	39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39
1. 종속변수 .....	39
2. 독립변수 .....	40
3. 조절변수 .....	49
4. 통제변수 .....	50
제 2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	52
1. 신뢰도 분석 .....	52
2. 타당도 분석 .....	54
제 3 절 상관분석 .....	57
제 4 절 회귀분석 .....	59
1. 1단계 모형분석 .....	61
2. 2단계 모형분석: 가설 1의 검증 .....	61
3. 3단계 모형분석 .....	63
4. 4단계 모형분석: 가설 2의 검증 .....	64
제 5 장 결론 .....	68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68
제 2 절 연구의 의의 .....	71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73
참고문헌 .....	75
Abstract .....	84

##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표 2-1> 네 가지 삶의 질 .....	8
<표 2-2> 행복, 삶의 질, 웰빙의 개념 비교 .....	9
<표 2-3>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 .....	11
<표 2-4>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3
<표 3-1> 변수설명 및 지표 .....	34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8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	39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	41
<표 4-3>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 .....	49
<표 4-4>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	51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	53
<표 4-6> 타당도 분석 결과 - 수렴타당도 .....	55
<표 4-7> 타당도 분석 결과 - 판별타당도 .....	56
<표 4-8> 상관분석 결과 .....	58
<표 4-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60
<표 4-10> 다중공선성 진단 .....	67
<표 5-1> 연구가설 검증결과 .....	70



## 그 립 목 차

<그림 1-1>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 .....	12
<그림 3-1> 연구 모형 .....	36
<그림 4-1> 종속변수(삶의 질)의 분포 .....	39
<그림 4-2> 인적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3
<그림 4-3> 경제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4
<그림 4-4> 자연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5
<그림 4-5> 인프라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6
<그림 4-6> 사회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7
<그림 4-7> 문화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	48
<그림 4-8> 조절변수(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4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더 많은 소득, 더 큰 물질적 풍요가 더 높은 행복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간 꾸준히 증가해온 소득과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인철, 2014).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Easterlin(1974)의 역설적 주장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행복’과 ‘웰빙’, ‘삶의 질’,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그간 행복과 웰빙,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인과관계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행복(또는 삶의 질,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던 ‘지역사회의 자본수준’을 포함하는 Kee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Kee et al., 2014)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어떤 계층에 속해있는지 또한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계층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신승배, 2015; 윤인진·김상돈,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수준으로는 중산층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이러한 계층과 계층의식의 차이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조선일보, 2017.9.19.). 실질적인 가구소득이 아니라, ‘인지된 불평등’과 ‘신뢰의 부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Oishi et al.(2011)의 연구처럼, 주관적 계층의식 또한 객관적 계층과는 별개로 행

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이라는 변수를 투입하여, 해당 변수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간 주관적 계층의식은 행복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층에 따라 행복의 영향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양재진 외, 2016). 개인이 속해 있는 계층에 따라 행복의 요인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곧 개인이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삶의 질의 요인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삶의 질의 영향요인들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자본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주관적 계층의식과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지방정부(서재호 외, 2012)의 활동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지방정부들이 급격한 고령화와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수요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모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밝히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수립하고 정책을 설계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지역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범위를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전국 27개 시/군/구의 주민 27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서술한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를 표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구 분	내 용
연구 대상	지역주민의 삶의 질
시간 범위	2015년
공간 범위	전국 (27개 전국 시/군/구의 주민 2723명 대상)
내용 범위	<p>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자본영역에 대한 평가,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 분석</li> <li>-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질의 관계 분석</li> <li>- 기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의 영향력 크기 비교</li> </ul>

## 제 3 절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본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지역사회의 자본영역과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구조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국 27개 시/군/구의 주민 27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설문조사 문항은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웰빙 설문조사지를 활용한 문항들이며,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 (주)한국리서치에 위탁의뢰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은 종이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원들의 대면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성별·연령·지역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을 고려한 비례할당 무작위추출 방식을 통해 응답자들이 선정되었다.

지역사회의 자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전국 27개 자치구의 만 19세 이상 국민들이 무작위 추출된 표본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인 자본영역과 계층의식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R 3.4.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통계분석 결과 얻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 및 주관적 계층의식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또한 분석할 것이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제 1 절 이론적 논의

#### 1. 삶의 질

그간 경제학, 심리학, 경영학 등 수많은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삶의 질과 삶의 만족, 행복, 웰빙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이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는 않는 실정이다(Mogilner et al., 2012).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왔던 행복, 웰빙, 삶의 질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삶의 질의 개념을 정리해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행복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다. 행복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Diener(1984)가 제시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그 의미의 정의가 쉽지만은 않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iener et al.(2003)은 행복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그간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대략 기쁨, 삶의 만족, 긍정적 감정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인철(2014)에 따르면, 그간의 연구들이 행복을 크게 ‘조건’으로 정의하거나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하였고,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조건으로서의 행복을 강조해온 반면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경험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최인철(2014)은 행복을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측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단일 요소가 아닌 복합 요소로서의 주관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sup>1)</sup> Veenhoven(1993) 또한 전반적인 행복(overall

happiness)을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호의적으로 내리는 평가’로 정의하면서 행복의 주관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은 GDP와 같은 객관적이며 물질적인 지표가 아니라 개인의 긍정적 감정 혹은 주관적인 만족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최영출, 2015).

삶의 질 또한 그간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적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경제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제시된 개념으로, 과거에 주로 경제적 부의 측면을 고려했던 양적인 관점을 보완하고자 확산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인석 외, 2015). 이와 관련하여 Veenhoven(2000)은 행복, 웰빙, 삶의 질 등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기회(chances)와 결과(outcomes), 외부(outer)와 내부(inner)라는 두 가지 축을 사용하여 네 가지 삶의 질(the four qualities of life)을 정의하였다. Veenhoven(2000)이 분류한 네 가지 삶의 질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Veenhoven(2000)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단순 합’이 아니라 ‘가치의 구성’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질을 연구한 다른 학자들 또한 삶의 질이 다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사실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Schalock (2004)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8개의 영역(domains)을 제시하였으며 이 영역들이 주관적 웰빙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Kane(2001) 또한 이와 유사하게 삶의 질을 구성하는 11가지 구성요소를 정의한바 있다.<sup>2)</sup>

---

1) 최인철(2014)은 주관적 행복을 행복의 본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소를 만족감, 정서경험, 의미경험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2) Schalock (2004)은 정서적 웰빙(emotional well-being), 사람 간 관계(interpersonal relations),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 개인적 발전(personal development), 신체적 웰빙(physical well-being),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사회적 융화(social inclusion), 권리(rights)를 제시하였으며 Kane (2001)은 안전(security), 안정(comfort), 의미 있는 활동(meaningful activity), 관계



<표 2-1> 네 가지 삶의 질

	외적 특성 (Outer qualities)	내적 특성 (Inner qualities)
삶의 기회 (Life chances)	환경의 살기 좋은 정도 (Livability of environment)	개인의 삶의 역량 (Life-ability of the person)
삶의 결과 (Life outcomes)	객관적 삶의 효용 (Objective utility of life)	주관적 삶의 만족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자료: Veenhoven(2000)

이승철(2014)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삶의 질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혹은 ‘평가’를 강조하는 측면이며 두 번째는 지역생활의 ‘질적 양태’ 혹은 ‘객관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측면이다(Myers, 1987; Blomquist et al., 1988). WHO (1997) 또한 삶의 질의 정의를 ‘개인이 살아가는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 하에서 인지되는 목표, 기대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내리고 있다. 위의 논의들로 미루어 볼 때, 삶의 질의 개념 또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웰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웰빙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OECD(2013)는 웰빙이 행복과는 엄연히 다름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OECD의 웰빙에 대한 정의는 ‘좋은 정신적 상태(good mental states)’로 표현되며, 사람들이 겪는 정서적 반응 및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다양한 평가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정의된다(OECD, 2013). 웰빙은 크게 객관적 웰빙과 주관적 웰빙으로 구분되는데, OECD의 접근은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웰빙의 개념을 앞서 살펴본 삶의 질과 비교할 때, 웰빙은 삶의 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웰빙

(relationships), 유희(enjoyment), 존엄(dignity), 자율성(autonomy), 사생활(privacy), 개성(individuality), 정신적 웰빙(spiritual well-being), 그리고 기능적 능숙함(functional competence)을 제시하였다.

은 삶의 질에 비해 의지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고, 욕구충족에 대한 능력 혹은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웰빙은 삶의 질이라는 넓은 개념에 포함되면서도, 삶의 질에 비해 더 역동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서재호 외, 2012). 지금까지 논의한 행복, 삶의 질, 웰빙의 개념과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행복, 삶의 질, 웰빙의 개념 비교

구분	행복	삶의 질	(개인적) 웰빙
개인적 / 집합적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영역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
양적 / 질적	양적	질적	양적 & 질적
객관적 / 주관적	주관적	객관적 & 주관적	객관적 & 주관적
정적 / 역동적	정적	정적	역동적
목표	긍정적 감정의 유도	결핍의 해소	생산, 축적, 발현(fourishing)
가치판단	가치중립	가치중립	가치지향

자료: Lee & Kim (2014)를 서인석 외(2015)에서 수정·재인용

지금까지 논의한 행복, 삶의 질, 웰빙에 관한 다양한 정의와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을 삶의 질로 정의하고자 하며, 특히 앞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행복, 삶의 질, 웰빙이 갖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며, 객관적 지표에서 주관적 만족감으로 점차 관심이 이동하는 그간 연구들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커뮤니티 웰빙과 Kee의 다차원 모형

다음으로, 커뮤니티(communitiy) 수준에서 주민들의 웰빙과 삶의 질, 삶의 만족을 논하는 것의 중요성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커뮤니티라 함은 “어떤 조직규모이던,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단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 대면접촉의 가능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가진다(최영출, 2015). 정보 및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커뮤니티는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때 어느 범위까지를 커뮤니티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영출(2015)은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 기준(국가의 행정적 공간단위,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제, 구성원들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도, 구성원들이 신념을 공유하는 정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로컬 커뮤니티(local community)로, 광역시·도가 리저널 커뮤니티(regional community)로 정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리되어야하는 행정적 공간단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과 투입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서인석 외, 2015) 커뮤니티단위에서 웰빙을 논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서재호 외(2012) 또한 그간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주로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치중해온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수준에서 지방정부 지향가치로서의 커뮤니티 웰빙 개념이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앞선 행복, 삶의 질, 웰빙의 경우와 유사하게, 커뮤니티 웰빙에 관련된 연구들 역시 통일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아래의 <표 2-3>은 국내·외 연구들에서 커뮤니티 웰빙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3>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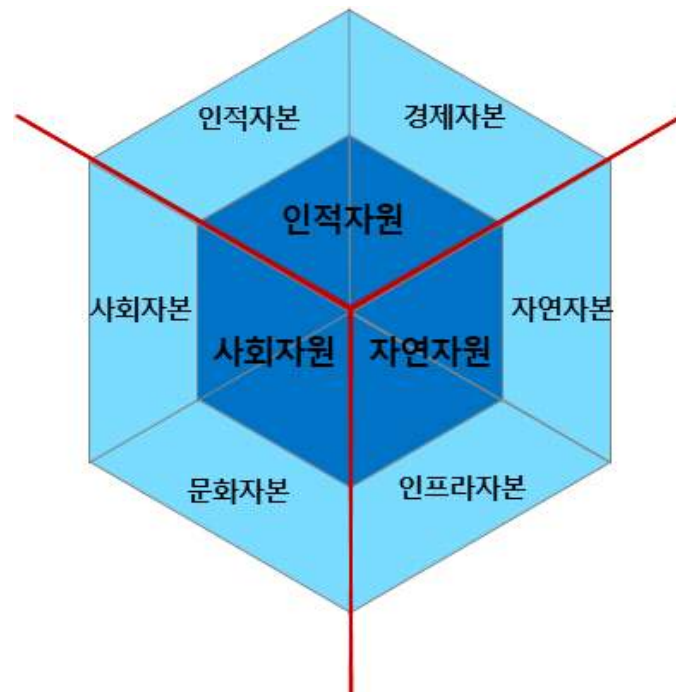
연도	연구자	개 념
1991	Kusel et al.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로서 공동체 자신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2001	Christakopoulou et al.	살기 좋은 지역의 요건인 살기 좋은 공간, 사회적 커뮤니티, 경제적 커뮤니티, 정치적 커뮤니티, 개인적 공간 제공, 지리적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의 커뮤니티
2002	Chanan	지역공동체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 지역이 얼마나 잘 관리되는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 그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온하며 가치가 있는가.
2002	Cuthill	시민과 공동체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본
2004	McHardy et al.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조건 (구성요소: 교육, 노동력, 소득, 주거)
2011	Kruger	커뮤니티에 속함으로써 안전감과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 (자연경관, 사회적 기여, 다른 문화의 수용 등을 포함함)
2012	서재호 외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외부 조건의 합
2016	서인석 외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역을 통해 지역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주관적 만족을 증진하는 것

자료: 서재호 외 (2012), 기영화 외 (2013) 수정보완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서 정의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요인으로서 Kee의 다차원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는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 웰빙 모델은 Smits & Hoekstra(2011)의 휴먼 웰빙 모델을 발전시킨 모델이다. Smits & Hoekstra(2011)의 휴먼웰빙 모델은 각각 경제자본, 인적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능 및 역량과도 연관된 개념으로써의 휴먼웰빙’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Smits & Hoekstra의 모델은 경제·인적·자연·사회 자본이라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는 한편, 건축물·교통망과 같은 인프라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서인석 외, 2015). 이를 보완한 Kee의 모델은 인프라자본을 포함한 6가지 자본을 포함하여 모형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높였으며, ‘자본’의 상위개념인 ‘자원’을 도입하여 커뮤니티 웰빙을 3자원 6자본의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1>은 Kee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1-1> Kee et al.(2014)의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



서인석 외(2016)에 따르면, Kee의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세분화 할 수 있다. 먼저 인적자원 중,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건, 복지, 교육이라는 세부영역이 있으며 경제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 고용, 지방재정, 지역경제라는 세부영역이 있다. 인적자본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모형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노인·장애인 서비스, 교육환경 및 평생교육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주민의 응답을 측정한다. 경제자본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일자리 수준과 실업자 지원정책, 납부하는 세금규모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전반적인 지역경제 상황과 지역에서의 생활비에 대한 주민의 응답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자연자원의 자연자본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으며,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 ICT, 안전이라는 세부영역으로 구성된다. 자연자본은 공기오염도, 지역의 녹지공간, 쓰레기 수거 및 청결도 수준, 소음 정도 등을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측정한다. 인프라자본은 지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로상태, 무료 인터넷 접근성, 치안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원을 구성하는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참여라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문화자본의 경우 문화활동,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자본은 주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서로 함께하는지(단체활동, 교류정도, 유대관계 등)와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참여하는지(공청회 활동, 자원봉사 등)를 측정한다. 문화자본은 지역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수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공간, 지역 특유의 문화제나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의 기타 세부지표와 측정 척도는 3장 변수설명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처럼 Kee 모형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여러 선행연구들이 삶의 질을 다차원 형태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Schalock, 2004; Kane, 2001; Veenhoven, 2000). 본 연구에서 Kee의 다차원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여러 영역을 ‘공동체’ 수준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주관적 계층의식

계층 혹은 사회계층은 한 사회의 구성원을 여러 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크게 물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객관적인 계층과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나뉘게 된다. 계층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적 접근으로 크게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베버주의적 관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은 자본과 생산관계에 입각하여 ‘계급의식’의 형성배경을 설명하는 반면에, 베버주의적 관점은 소득, 직업,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시장자원의 보유 수준에 따라 ‘계층의식’이 형성된다는 관점을 취한다(이연경·이승중, 2017; 이병훈·윤정향, 2006; Vanneman & Pampel, 1977). 이와 관련하여 이병훈·윤정향(2006)은 계급의식(class consciousness)과 사회적 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의 차이를 강조하는 Jackman & Jackman(1973)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계층의식을 “사회계층의 위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거나 특정 계층지위에 주관적인 일체감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계층의식’은 앞서 설명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계급의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라는 단편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적합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홍두승(2005) 또한 사회계층의 실증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중산층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각각 직업, 소득, 자산, 교육, 중산층 귀속의식을 제시하였다. 이 중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관적 계층의식에 해당하며, 나머지 직업, 소득, 자산, 교육은 객관적 계층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계층의식(혹은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계층과는 차이를 갖는다. 객관적 계층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소득, 자산, 교육수준이라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주관적 계층의식은 주로 설문조사(서베이)를 통해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냐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나타난다(금현섭·백승주, 2011;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한편,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Vanneman & Cannon, 1987; 금현섭·백승주, 2011; 이연경·이승중, 2017).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객관적 계층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계층과는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으며, 계층의식이 객관적 지표로부터 상당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연경·이승중, 2017). 즉, 주관적 계층의식과 객관적 계층 지표(소득, 학력, 재산 등)는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객관적 계층과 관련된 지표들이 주를 이룬다. 주로 직업,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각 연구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Jackman & Jackman, 1973; 장상수, 1996; 김병조, 2000).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개인의 생활경험 혹은 생활만족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차종천(1987)은 출신지역이라는 변수에 따라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응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병조(2000)는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개인의 속성 뿐 만 아니라, 가구의 속성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가구의 거주지 혹은 주택유형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조돈문, 1994; 신광영, 1997; 김진욱·정의철, 2004)이 있으며, 가구의 경제능력 혹은 가구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재경, 1992; 조돈문, 1994)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종합하건데, 이처럼 주관적 계층의식은 객관적 계층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객관적 조건이라는 단순한 지표들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가까운 지인 혹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비교과정이 사람의 행태 및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권정윤, 2017)에 자신의 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리한 선행연구들과 현대 사회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정의하고자 하며 다음 절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Kee 모형의 여섯 가지 자본요소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각각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해당하며 각각의 자본 영역은 그에 따른 세부영역(또는 지표)들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자본영역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관련된 가설을 세울 것이다.

인적자본은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세부항목을 가진다. 먼저 교육영역과 관련하여, 임근식(2012)은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모두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이라는 변수가 지역주민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상곤·김성중(2008)은 안산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지표가 행복집단과 불행집단을 가르는 요소로 작용을 하며, 지역의 복지정책은 주민 개인의 주관적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말옥·문유석(2011)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의 생활여건 요인 중 교육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은 현재 보다는 미래와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교육환경 격차가 존재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최말옥·문유석(2011)은 지적하고 있다.<sup>3)</sup> 지역의 인적자본 중 보건과 관련된 지표들은 주로 지역의 의료여건, 의료시설, 의료인

---

3) 최말옥·문유석(2011)은 부산의 대학진학률과 같은 교육환경이 인근의 도시인 대구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산시민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력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건지표들 역시 대체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포함되고 있다(송건섭, 2007; 송건섭 외 2008; 최말옥·문유석, 2011). 장인수(2013)는 노인복지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삶의 만족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인이라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결과 일 수 있으나, 노인의 부양을 담당해야하는 중년 혹은 청년의 경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적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운 내용은 아래의 가설 1-1과 같다.

가설 1-1. 지역사회 인적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자본은 고용,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의 세부항목을 가진다. 경제자본과 관련된 지표들은 전통적으로 행복 혹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경제자본은 해당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상황 혹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경제현황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건섭(2007)은 광역시의 경우 소비생활과 관련된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방세금 및 물가와 관련된 변수들이, 그리고 자치군에서는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변수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영출(2015)은 커뮤니티 웰빙 영향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인과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지역경제 변수가 가장 큰 직접 영향력을 나타내었음을 강조하면서,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경우 지역경제 영역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변수가 지역경제를 통해 커뮤니티 웰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작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최영출, 2015). 앞선 연구들과는 다르게, 임보영·마강래(2016)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집계적 자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경우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1인당 지방세라는 변수를 투입하였으나 해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보영·마강래, 2016). 이처럼 지역의 경제자본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보이나, 일부의 연구들에서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경제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아래의 가설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2. 지역사회의 경제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연자본은 크게 생활환경과 관련된 요소 혹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소들로 나뉠 수 있다. 생활환경에는 쓰레기수거, 거리청결도, 소음수준 등이 해당되며 자연환경은 녹지공간이나 공기오염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성종상(2014)은 녹지가 건강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다섯 가지(각각 육체적, 생리학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효용)로 정의하였으며,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녹지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역설하고 있다. 장인수·김홍석(2016)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1인당 도시 공원 면적, 녹지면적, 가로녹시율과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 외곽지역의 보행환경 혹은 건물 밀집도와 같은 생활환경이 지역주민들의 건강(비만, 고혈압, 만성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Ewing et al., 2014; Cohen et al., 2003)은 생활환경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아래의 가설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설 1-3. 지역사회 자연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 ICT, 안전 등의 하위 항목을 가지며, 인프라자본의 하위 항목들은 대체로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분석한다(Sirgy et al., 2008; Catalano & Satori, 2013; 임근식, 2012; 강월석·양해술, 2012). Sirgy et al.(2008)은 커뮤니티 웰빙과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교통에 대한 만족이 커뮤니티 웰빙을 예측하는데 유의했고 결국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Catalano & Satori(2013)은 유럽 10개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발전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장기적으로 웰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atalano & Satori(2013)은 이러한 웰빙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명운까지도 결정짓는다고 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임근식(2012) 또한 삶의 질 인식 구성요소를 만족감, 안전감, 편리감, 쾌적감, 신뢰감, 행복감이라는 6가지로 정의하였으며, 그 중 교통환경(편리감), 안전환경(안전감)이라는 변수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강월석·양해술(2012)은 정보격차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이 개인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격차가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은 아래의 가설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설 1-4. 지역사회의 인프라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참여 등의 하위구성요소를 가진다. 사회자본이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우명숙 외, 2013; 장인수, 2013; 배정현, 2014; 강민성; 2015). 우명숙 외(2013)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들의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인수(2013)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청렴도라는 변수를 투입하여 지역의 사회자본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정현(2014) 또한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보장제도, 법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같은 사회자본이 주민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정명은 외(2014)는 관용 혹은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이 행복(삶의 질)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재산수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상관성 또한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자본의 행복에 대한 영향이 점차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정명은 외(2014)는 이에 맞춰 우리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다. 다만 강민성(2015)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행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회신뢰는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서구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사회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1-5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가설 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자본은 문화활동,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자산 등의 하위 요소를 갖는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Riddick, 1986; Uysal et al., 2012; 우은주, 2013; 윤인진·김상돈, 2008). Riddick(1986)은 연령대에 따라 레저(여가활동)만족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연구에서, 연령은 레저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레저활동이 직간접적으로 행복(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Uysal et al.(2012)은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우은주, 2013에서 재인용). 우은주(2013)는 미국 유명 관광지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개발과 그 영향, 그리고 삶의 만족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윤인진·김상돈(2008)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고급여가활용, 그리고 생활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고급여가활용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아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아래의 가설 1-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6.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또한 그간의 연구에서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연구들에서 행복 혹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소득, 혼인상태, 성별, 연령, 학력, 자가여부(주택소유여부),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Diener, 1984; WHO, 1997; 최말옥·문유석, 2011; OECD, 2013; 배정현, 2014; 임보영·마강래, 2016; 이미애·이승중, 2016).

## 2.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 또는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아닌 객관적 계층에 입각한 연구들이 많았음을 이연경·이승중(2017)은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표 2-4>는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2-4>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년도	연구자	사회계층					비고
		객관적 사회계층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	주거	교육	직업 (고용)		
2008	윤인진 외	○		○	○	○	객관적 지위,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생활만족과 연관
2010	강성진	○	○	○	○		거주 지역 평균소득 고려.
2011	장승진	○		○	○		격차변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
2013	이양호 외	○		○	○		가정경제, 정치상황만족도 활용.
2014	한준 외	○		○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자본의 영향도 고려
2014	구교준 외	○		○			삶의 역량(교육 등)이 소득의 한계효과를 조절.
2014	최인철	○	○	○	○	○	계층보다 주관적 보고가 행복과 더 강한 연관.
2015	박종선 외	○	○	○	○		소득을 준거집단과 비교하여 만족도 분석. 상대적 관점을 취함.
2015	신승배	○		○	○	○	일, 가정생활,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만족도) 활용.

자료: 이연경·이승중(2017)의 표 수정인용



이연경·이승중(2017)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객관적 계층 변수와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 행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 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객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계층의식 사이의 ‘차이’ 또한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승배(2015)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있다. 그 중 유념할 점은, 한국인의 행복감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성격 혹은 개인적 성향 등)보다 개인의 삶의 영역(일, 가정생활, 가계경제 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는데(신승배, 2015)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변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윤인진·김상돈(2008)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고급여가활동 수준과 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윤인진·김상돈(2008)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 모두가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객관적 지표만큼이나 개인의 주관적 만족(혹은 인식)이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Campbell et al.(1976)과 Mammen(1980; 윤인진·김상돈, 2008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현송(2000)은 소득과 소득에 대한 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소득 그 자체보다 주관적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라는 단일변수가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종속변수의 변동 중 40% 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계층(여기서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이 주관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이현송, 2000).

오현복(2010)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다른 객관적 사회경제지위 지표(교육수준, 가구소득, 자산, 주택 소유여부 등)보다 삶의 질 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건강상태만족도와 우울감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진 외(2016) 또한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을 분석한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여길 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경제변수(객관적 계층)보다 사회적 관계형성, 인정감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양재진 외, 2016)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계층과 관련된 변수들이 삶의 질, 행복 또는 웰빙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Joaquina(2007)는 멕시코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웰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속해 있는 객관적 계층에 비해 “자신이 덜 빈곤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인 웰빙 지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및 일상의 문제 등을 해결할 때도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oaquina, 2007). 이처럼 계층의식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계층의식 별로 사람들의 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층의식 수준별로 웰빙의 결정요인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혁제(2009)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일부 조절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재진 외(2016)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상층이라고 여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삶의 만족에 대한 계층의식의 직접효과를 확인한 부분인데, 양재진 외(2016)는 이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계층(직업 등)별로 편재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계층별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과 행복요인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람·전인수(2017)는 소득계층에 따라 문화적 여건이라는 변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소득계층이 문화적 여건과 행복감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 결과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소득계층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지만, 앞서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 논한바와 같이 절대적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행복 또는 삶의 질 만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정책의 목표를 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Veenhoven(2002)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주민들이 인식하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계층을 대표하는 변수 또한 객관적 계층이 아닌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질에 직접

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의 수준에 따라 삶의 질 영향요인(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가설 1-1부터 가설 1-6까지의 관계에 주관적 계층의식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1부터 가설 2-6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2-1.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적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주관적 계층의식은 경제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연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프라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주관적 계층의식은 문화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삶의 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삶의 질(혹은 행복,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Wolf(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상호주관적 웰빙(intersubjective wellbeing)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지 않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만족과 간주관적(상호주관적) 평가는 각각 내적상태와 외적상태에 대응되며, 상호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만족도에 비해 보다 집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Wolf, 2012). 물론 ‘개인의 만족’과 ‘지역사회 자본 수준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분리되는 개념은 아닐 것이며(기영화 외, 2014),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민 개인’보다는 ‘지역’수준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합적 수준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지방정부의 목표(서재호 외, 2012)를 생각할 때, 공동체 수준에서 지역의 자본 수준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구조를 밝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선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본영역의 경우에서 높은 수준의 자본이 높은 수준의 삶의 질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일부 연구들의 경우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웰빙 다차원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 정주의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미애·이승중, 2016)는 있었으나, 정주의식은 삶의 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각 자본영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Kee의 모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앞선 연구들에서 객관적 지표들(소득, 교육기간 등)과 행복(혹은 삶의 질)의 관계를 주관적 계층의식이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정보람·전인수, 2017; 오혁제, 2009; 최명민, 2010), 혹은 행복 결정요인에 ‘개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임재영 외, 2014)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커뮤니티 웰빙 영역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의 관계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 제 1 절 연구 변수

####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삶의 질 변수이다. 통상적으로 삶의 질은 행복, 삶의 만족, 웰빙 등의 유관개념과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 연구는 앞선 이론적 검토에서 삶의 질을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구성원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한 바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삶의 질을 측정할 때, 전반적 삶의 질 만족(overall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혹은 전반적인 삶(your life as a whole)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Sirgy et al., 2008; 송건섭 외, 2008; 우은주, 2013; 이승철,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삶의 질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리커트 10점 척도를 활용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정밀한 리커트 10점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도 비교적 부합하는 측정방법이라 볼 수 있다.<sup>4)</sup> 종속변수인 삶의 질 변수가 어떤 분포를 보이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제 4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절 기술통계 분석 부분에서 추가로 다루고자 한다.

---

4)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된 자료는 주로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보영·마강래(2016)의 연구에서 개인이 리커트 5점 척도로 삶의 만족감을 응답했을 때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는 Kee 모형(Kee et al., 2014)의 여섯 가지의 커뮤니티 웰빙 자본요인으로 구성된다. 여섯 가지의 자본요인은 각각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며 각각의 자본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각 자본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의 리커트 10점 척도를 이용해 평가하게 된다. 각각의 자본들은 하위 지표 및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측정항목)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세부지표들의 가중 평균값을 계산하여 자본요인의 값으로 대체한다.<sup>5)</sup>

구체적으로, 인적자본은 보건(건강상태, 의료서비스), 복지(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 교육(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이라는 세 가지 지표와 아홉 가지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제자본은 고용(실업자 지원정책, 일자리 수준), 지방재정(재정규모,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지역경제(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지역 거주에 필요한 생활비)라는 세 가지 지표와 여섯 가지 세부지표를 가진다. 자연자본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세부지표(공원 및 녹지 공간, 공기오염도)와 생활환경 관련 세부지표(쓰레기수거 서비스, 거리 청결도, 소음 정도)라는 총 다섯 가지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sup>6)</sup> 인프라자본은 교통시스템(대중교통, 도로 상태), ICT(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 안전(자연재해 대비, 치안, 경찰서비스)이라는 세 가지 지표와 여섯 가지 세부지표를 갖는다. 사회자본의 경우, 크게 지역의 네트워크(지역 단체활동, 지

5) 가중치의 경우, 4장에서 실시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사용하여 가중평균을 계산한다.

6) Kee의 모형(Kee et al., 2014)은 자연자본을 다른 하위항목으로 나누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위 지표의 구분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자연자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키로 한다.



역 유대관계, 지역 교류정도, 지역 언론의 정치정보 제공수준)와 참여(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공청회 활동 수준, 자원봉사활동,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협업)로 구분되는 여덟 가지 세부지표를 갖는다.<sup>7)</sup> 마지막으로 문화자본의 경우, 문화활동(여가생활 수준, 문화프로그램 수준),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자산(지역문화재, 지역축제, 지역의 전통 및 문화)라는 세 가지 지표와 여섯 가지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 3. 조절변수

선행연구 검토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승배, 2015; 이연경·이승중, 2017).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계층 혹은 직업별로 편재해 있다는 양재진 외(2016)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 영향요인들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만 아니라, 독립변수(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와 종속변수(삶의 질) 양자 간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효과 또한 검증하고자 한다. 조절변수로 포함된 주관적 계층의식 항목은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하하”부터 “상상”까지 9단계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척도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이 5점 척도 혹은 6점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나(이병훈·윤정향, 2006; 윤인진·김상돈, 2008; 오혁제, 2009), 최근의 연구들이 보다 정밀한 9점 혹은 10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신승배, 2015; 이연경·이승중, 2017), 본 연구에서의 조절변수 척도는 그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7) 서인석 외(2016)는 사회자본을 크게 네 가지 지표(규범,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두 가지 지표(참여,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Diener, 1984; 최말옥·문유석, 2011; OECD, 2013; 배정현, 2014; 신승배, 2015; 임보영·마강래, 2016; 이연경·이승중, 2017)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주거특성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결혼여부, 연령, 성별로 구성되며 결혼 여부는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1, 미혼·이혼 등과 같이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연령은 기존의 설문조사 당시의 응답자 나이를 의미하며, 성별은 남자가 1의 값을 가지고 여자가 2의 값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학력, 가구소득, 경제활동여부로 구성된다. 학력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1점(초등학교 졸업 이하)부터 5점(대학원 재학 이상)까지의 값을 갖는다. 월가구소득 변수는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점(0~99만원)부터 11점(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경제활동여부는 설문조사 당시에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1의 값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0의 값을 갖도록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특성관련 요인은 자가여부, 거주기간, 지역크기로 구성된다. 자가 여부 변수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의 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에 0의 값을 가지며,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크기는 광역자치도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1의 값을, 광역자치도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2의 값을 가지며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서술된 종속·독립·조절·통제변수들을 표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3-1>과 같다.

<표 3-1> 변수설명 및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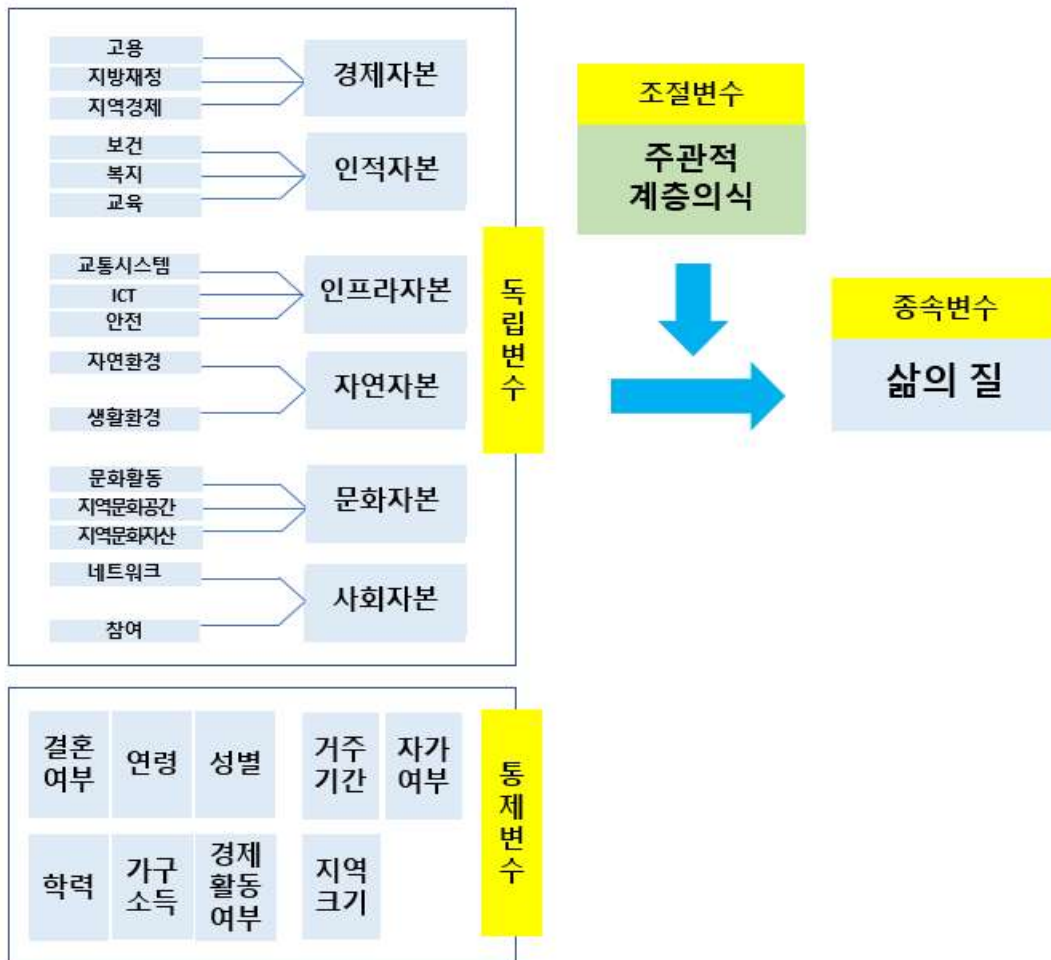
구분	변수	지표	세부지표	척도
종속 변수	삶의 질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독립 변수	인적자본	보건	건강상태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의료서비스	
		복지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	
		교육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	
	경제자본	고용	실업자 지원정책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일자리 수준	
		지방재정	재정규모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지역경제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자연자본	자연환경	공기오염도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공원·녹지 공간	
		생활환경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주변 소음 정도	
	인프라 자본	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도로상태	
		ICT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안전	자연재해 대비	
			치안	
			경찰서비스	
	사회자본	네트워크	지역사회 단체활동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 교류정도	
			신문/TV의 지역관련 정치정 보 제공 수준	
		참여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지역 현안 관련 공청회의 활 동 수준	
			자원봉사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문화자본	문화활동	여가생활수준	10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10)
			문화프로그램 수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지역 문화공간	지역문화공간	
		지역 문화자산	지역문화재	
			지역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및 문화	
조절 변수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지		9점 척도 (하하=1, ... 상상=9)
통제 변수	인구 통계학적 요인	결혼 여부		비혼=0, 기혼=1
		연령		연속형(세)
		성별		남성=1, 여성=2
	사회 경제적 요인	학력		5점 척도 (초졸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이상=5)
		가구소득(월, 세전)		11점 척도 (0-99만원=1, 100-199만원=2, ... 900-999만원=10, 1000만원 이상=11)
		경제활동여부		아니오=0, 예=1
	주거 특성관련 요인	자가여부		자가 아님=0, 자가=1
		거주기간		연속형(년)
		지역크기		광역시·자치도 읍·면=1, 광역시·자치도 동=2, 서울시·광역시=3

## 제 2 절 연구 모형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자본요인에 대한 평가(독립변수)와 주관적 계층의식(조절변수)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 제 3 절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R 3.4.1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상관분석, 그리도 다중회귀분석의 순서를 통해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경우, 1단계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만을 투입하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모형과 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투입하여 결정계수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며 4단계에서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총 6개)들을 투입하여 모형의 유의성 및 결정계수 변화량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회귀분석 과정에서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변수끼리의 곱을 통해 계산하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변수들을 표준화한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앞서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 27개 시/군/구의 주민 2,7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sup>9)</sup> 설문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위탁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를 고려하여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 되었고, 조사원들이 직접 질문지를 지참하여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2,723명의 표본 중, 본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결측값을 가지고 있는 응답을 제거하여 총 2,53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2,53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3-2>에 정리되어 있다.

---

8) 기술통계분석에서는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 파악을 위해 표준화 이전의 원변수를 사용하였다.

9)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5개, 광역시 자치구가 6개, 광역도 자치구가 16개 포함되어 총 27개의 자치구가 선정되었다.

<표 3-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명)	비율 (%)	변수	항목	빈도 (명)	비율 (%)
결혼 여부	미혼	563	22.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77	14.9
	기혼	1,760	69.5		중학교 졸업	273	10.8
	이혼, 별거, 사별 등	208	8.2		고등학교 졸업	949	37.5
연령	20세 미만	42	1.7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	888	35.1
	20대	363	14.3		대학원 이상	44	1.7
	30대	436	17.2	경제 활동 여부	예	1,961	77.5
	40대	492	19.4		아니오	570	22.5
	50대	506	20.0	자가 여부	자가(내 집)	1, 919	75.8
	60대	408	16.1		전세	334	13.2
	70대	241	9.5		보증금 있는 월세	196	7.7
	80대	43	1.7		보증금 없는 월세	31	1.2
성별	남성	1,249	49.3		공동주택 (쉐어 하우스, 기숙 사, 고시원 등)	15	.6
	여성	1,282	50.7		기타	36	1.4
월 가구 소득 (세전)	0-99만원	279	11.0	거주 기간	10년 미만	693	27.4
	100-199만원	433	17.1		10~19년	507	20.0
	200-299만원	463	18.3		20~29년	506	20.0
	300-399만원	494	19.5		30~39년	280	11.1
	400-499만원	316	12.5		40~49년	209	8.3
	500-599만원	307	12.1		50~59년	157	6.2
	600-699만원	104	4.1		60~69년	103	4.1
	700-799만원	51	2.0		70년 이상	76	3.0
	800-899만원	33	1.3	지역 크기	서울특별시, 광역시	1,007	39.8
	900-999만원	16	.6		(광역시자치도) 동지역	501	19.8
	1000만원 이상	35	1.4		(광역시자치도) 읍/면지역	1,023	40.4

## 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 1. 종속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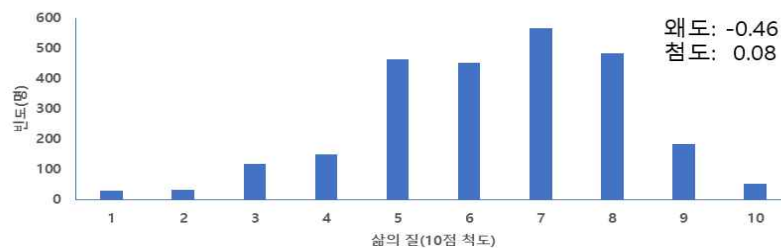
삶의 질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삶”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으며, 매우 낮음(1점)부터 매우 높음(10점)까지의 10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삶의 질 변수는 평균이 6.36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781점으로 계산되었다.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4-1>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삶의 질	2531	6.36	1.781	1	10

<그림 4-1>은 삶의 질 변수 값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보여주며, 종속변수의 왜도는 -0.46, 첨도는 0.08로 계산되었다. 삶의 질이 높은 쪽(오른쪽)으로 다소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회귀분석에 적합한 종 모양(bell-shaped)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종속변수(삶의 질)의 분포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각 세부지표의 지역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낮음(1점)부터 매우 높음(10점)까지의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인적자본의 경우, 세부지표의 평균값은 5.31(평생교육서비스)부터 6.64(건강상태)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건강상태 지표(1.644)가 가장 작게 나타났고 공공도서관 지표(2.318)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적자본 영역에서는 건강상태지표가 평균은 가장 높지만 표준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본의 경우, 평균은 4.85(실업자 지원정책)부터 5.41(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지표(1.678)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수준지표(2.010)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실업자 지원정책 지표와 일자리 수준 지표의 평균이 각각 4.85, 4.90으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지역사회의 고용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자본의 경우, 평균은 6.28(주변 소음 정도)부터 6.75(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지표(1.991)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공기오염도(2.241)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른 영역에 비해 자연자본의 세부지표들은 평균값이 모두 6점 이상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자연자본에 대한 평가가 다른 자본영역에 비해 평균값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프라자본의 경우, 평균은 5.25(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부터 6.60(치안, 경찰서비스)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자연재해 대비 지표(1.810)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지표(2.205)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인프라자본 영역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지표들

(자연재해 대비, 치안, 경찰서비스)이 같은 영역 내의 다른 지표들 보다 평균은 높은 반면 표준편차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지표들을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자본의 경우, 평균은 5.45(지역 현안에 대한 공청회 활동수준)부터 6.08(지역사회 단체활동)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자원봉사활동 지표(1.759)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1.862)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자본 영역의 세부지표들은 표준편차가 최소 1.759에서 최대 1.862로 다른 자본영역의 지표들에 비해 표준편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주민들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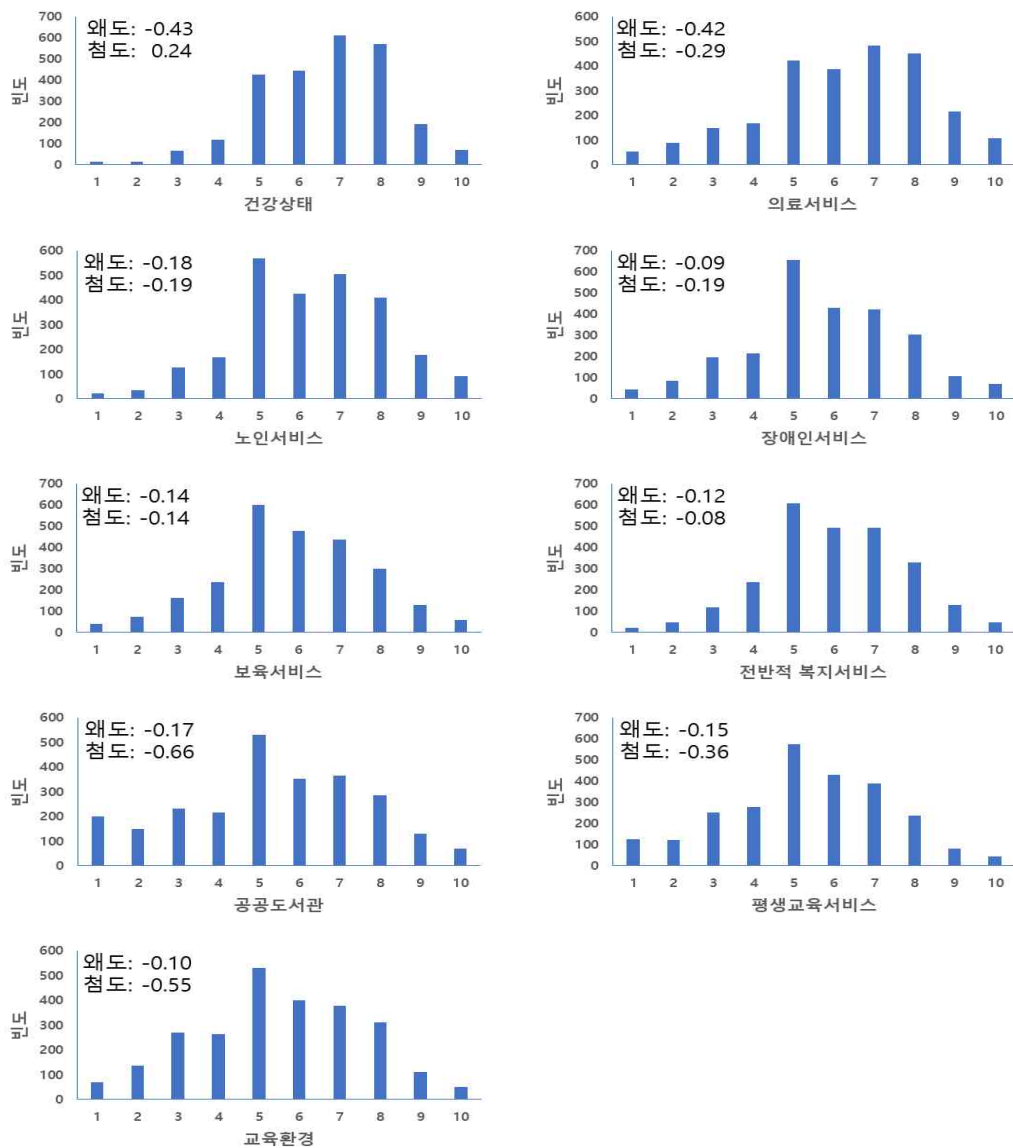
문화자본의 경우, 평균은 5.25(지역 문화공간)부터 6.19(문화프로그램 수준)까지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문화프로그램 수준 지표(1.906)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지역축제 지표(2.261)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문화자본 영역에서는 문화프로그램 수준 지표만 6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문화자본영역 내의 다른 세부지표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을 표로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세부지표					
인적자본	건강상태	2531	6.64	1.644	1	10
	의료서비스		6.25	2.084	1	10
	노인서비스		6.28	1.834	1	10
	장애인서비스		5.76	1.921	1	10
	보육서비스		5.84	1.882	1	10
	전반적 복지서비스		6.00	1.744	1	10
	공공도서관		5.35	2.318	1	10
	평생교육서비스		5.31	2.050	1	10
	교육환경		5.52	2.068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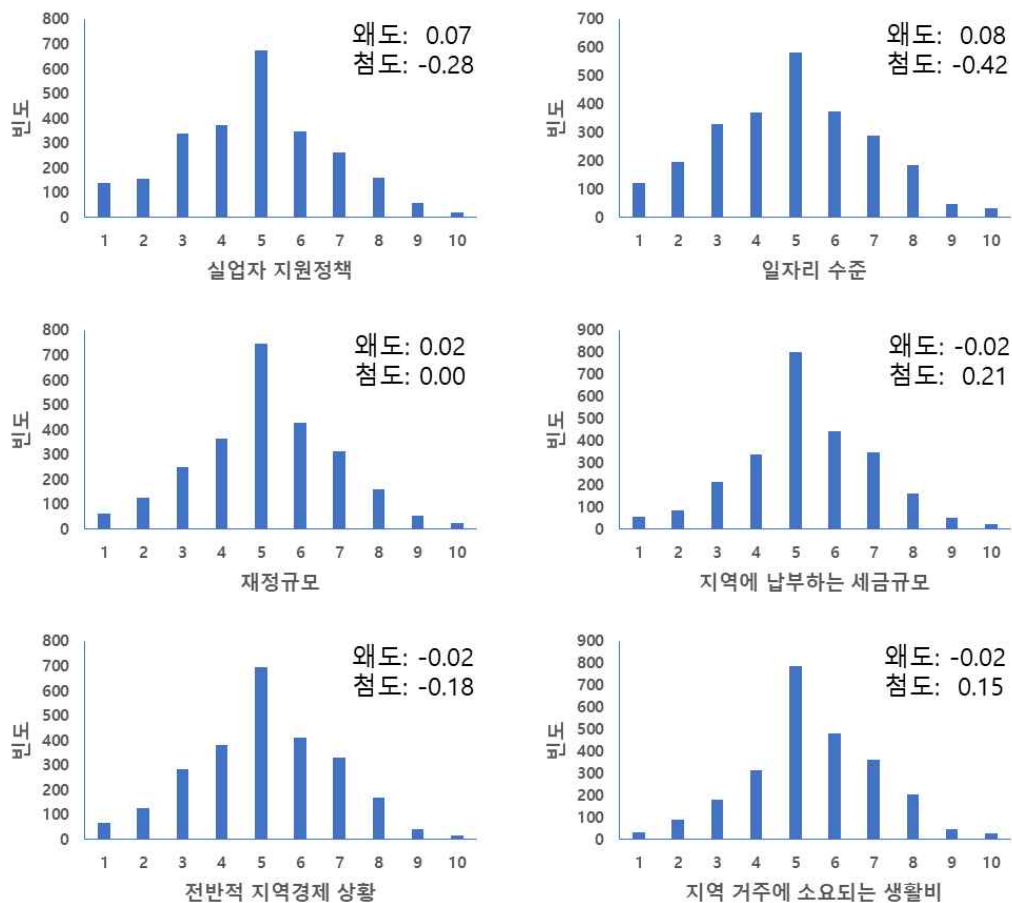
경제자본	실업자 지원정책	2531	4.85	1.950	1	10
	일자리 수준		4.90	2.010	1	10
	재정규모		5.15	1.783	1	10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5.28	1.714	1	10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5.09	1.789	1	10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5.41	1.678	1	10
자연자본	공기오염도	2531	6.64	2.241	1	10
	공원·녹지 공간		6.53	2.237	1	10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6.75	1.998	1	10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6.48	1.991	1	10
	주변 소음 정도		6.28	2.178	1	10
인프라자본	대중교통	2531	6.26	2.205	1	10
	도로상태		6.25	1.986	1	10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5.25	2.190	1	10
	자연재해 대비		6.33	1.810	1	10
	치안		6.60	1.915	1	10
	경찰서비스		6.60	1.904	1	10
사회자본	지역사회 단체활동	2531	6.08	1.828	1	10
	지역사회 유대관계		6.06	1.851	1	10
	지역사회 교류정도		5.91	1.851	1	10
	신문/TV의 지역관련 정치정보 제공 수준		5.71	1.850	1	10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5.61	1.862	1	10
	지역 현안 관련 공청회의 활동 수준		5.45	1.856	1	10
	자원봉사활동		6.02	1.759	1	10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5.56	1.851	1	10
문화자본	여가생활수준	2531	5.69	1.987	1	10
	문화프로그램 수준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6.19	1.906	1	10
	지역문화공간		5.25	2.180	1	10
	지역문화재		5.28	2.195	1	10
	지역축제		5.41	2.261	1	10
	지역 고유의 전통 및 문화		5.31	2.086	1	10

<그림 4-2> 인적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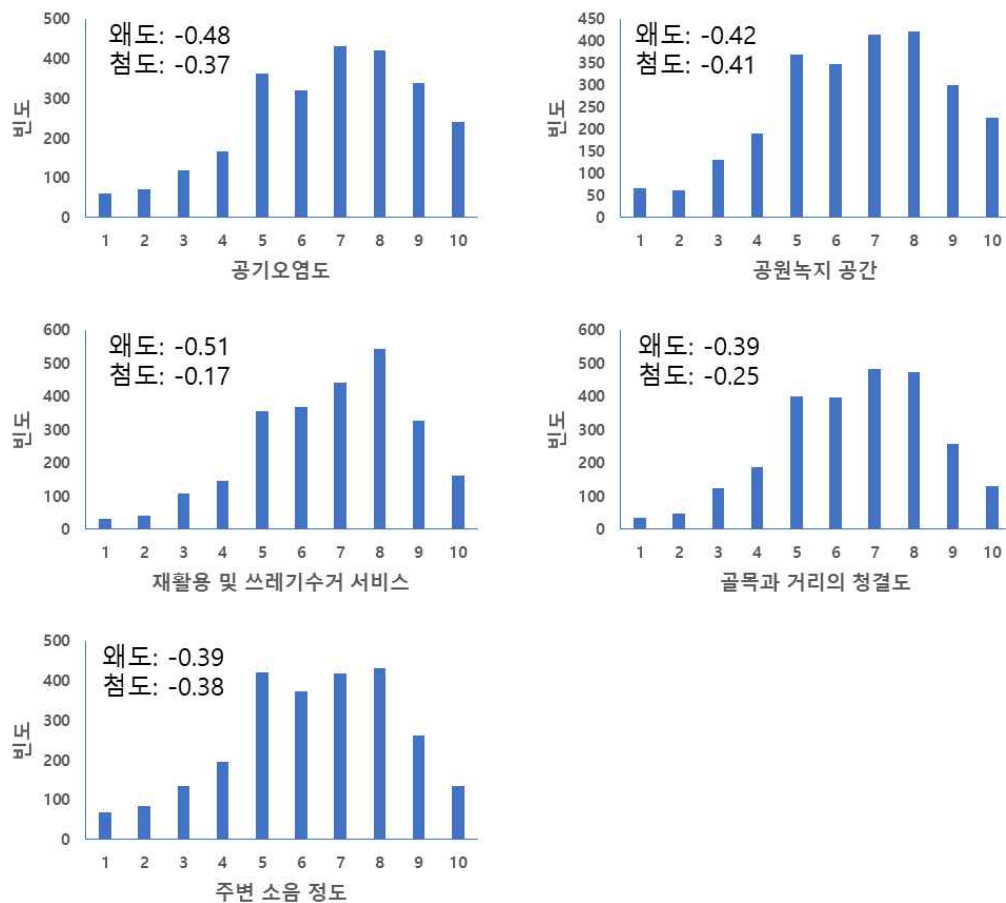
<그림 4-2>는 인적자본 세부지표들의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적자본 내 세부지표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건강상태(6.64)’와 ‘의료서비스(6.25)’ 지표는 왜도가 - 0.4보다 작게 나타나 다른 지표들 보다 더 높은 점수 쪽으로 응답값이 치우쳐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지표들은 왜도값이 - 0.1에서 - 0.2 부근으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좌우대칭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경제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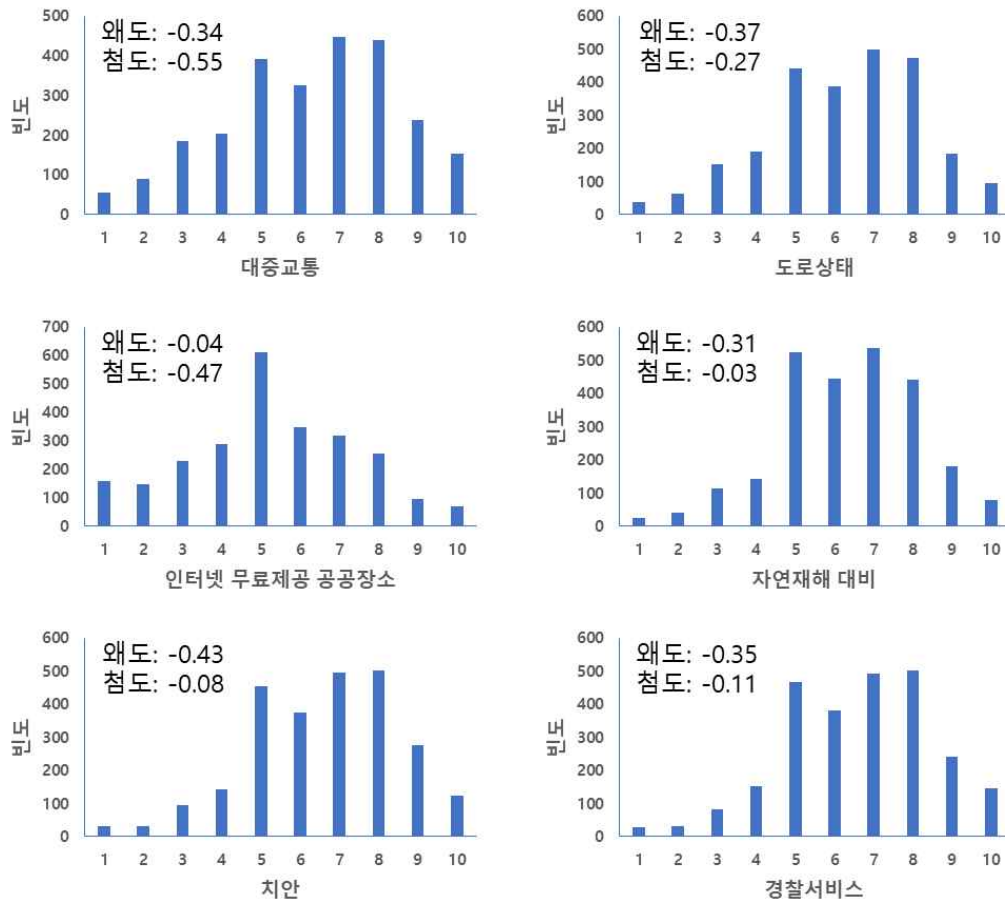
<그림 4-3>은 경제자본 영역의 세부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림이다. 앞선 인적자본의 세부지표들과는 달리, 경제자본의 세부지표들은 많은 응답자들이 5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왜도값이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최대 0.08, 최소 -0.02) 상대적으로 좌우대칭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세부지표들에 비해 ‘일자리 수준’ 지표의 첨도가 가장 작게 나타나, 정규분포의 형태보다 다소 납작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일자리 수준’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지표들의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고루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마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자연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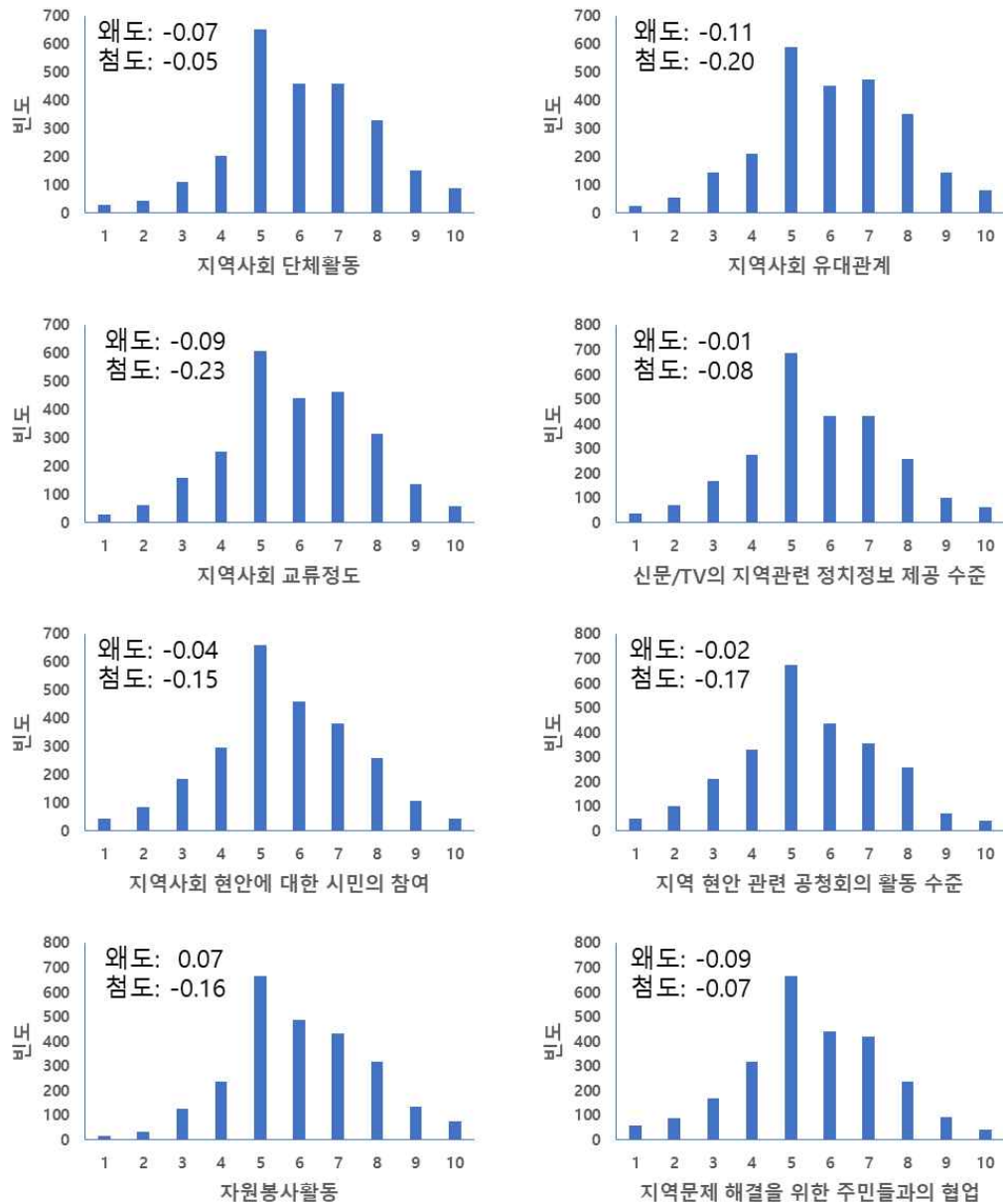
<그림 4-4>의 히스토그램은 자연자본의 세부지표 값들이 어떤 형태의 분포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연자본의 지표들은 왜도값이 -0.39에서 -0.5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점수 쪽으로 치우친 응답 값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선 <표 4-2>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연자본의 세부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첨도 또한 -0.17부터 -0.4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분포의 형태보다 양측 꼬리가 더 두꺼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의 응답 값이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5> 인프라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그림 4-5>는 인프라자본의 세부지표 값들이 어떤 형태의 분포를 보이는지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앞선 자연자본의 세부지표들 처럼 -0.31에서 -0.43의 왜도값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모양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지표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이 5점 값을 응답하였으며, 왜도가 -0.0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좌우대칭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2>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지표가 인프라자본 내의 지표들 중 가장 낮은 평균값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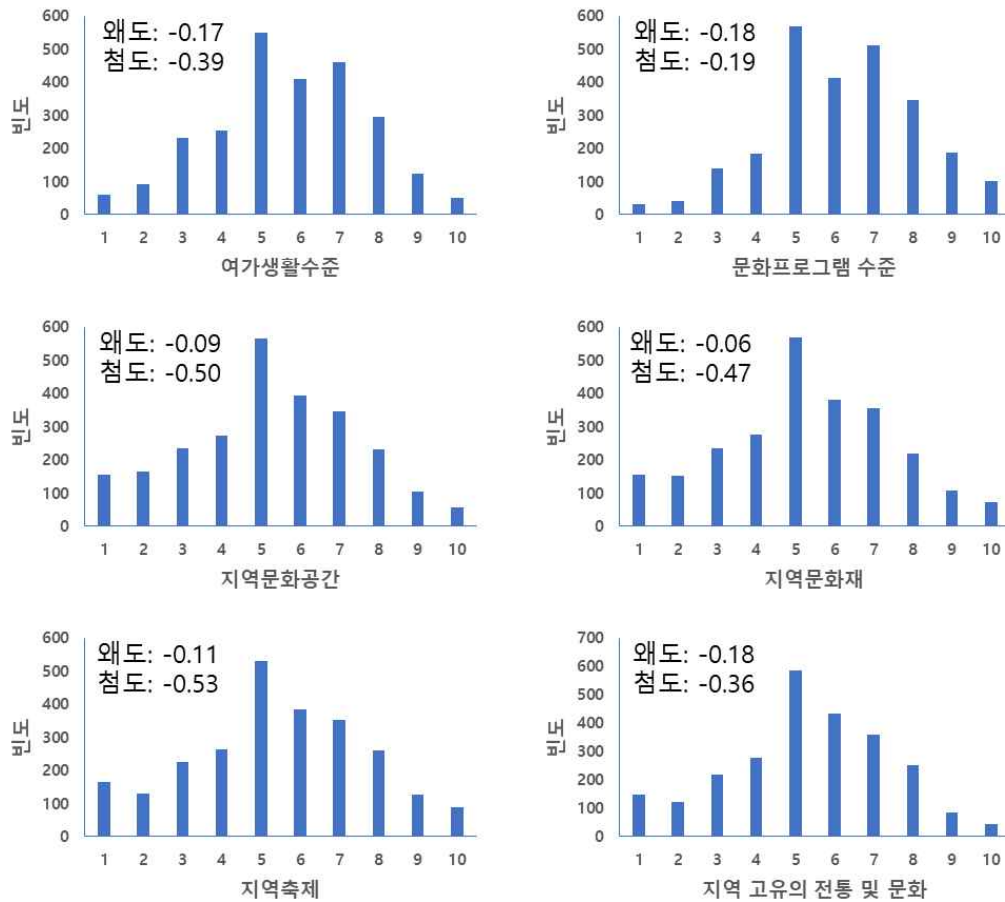
<그림 4-6> 사회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그림 4-6>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세부지표들 또한 비교적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좌우대칭에 가까운 모양의 히스토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왜도값 또한 -0.11에서 0.07까지 0에 가까운 값들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7> 문화자본 세부지표의 분포



<그림 4-7>는 문화자본의 세부지표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표들이 좌우대칭 형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가생활수준’과 ‘문화프로그램 수준’ 지표의 경우에는 5점보다 높은 값들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두 지표의 평균값이 다른 네 지표의 평균값보다 더 큰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문화자본의 세부지표들 중에서도 ‘여가생활수준’과 ‘문화프로그램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조절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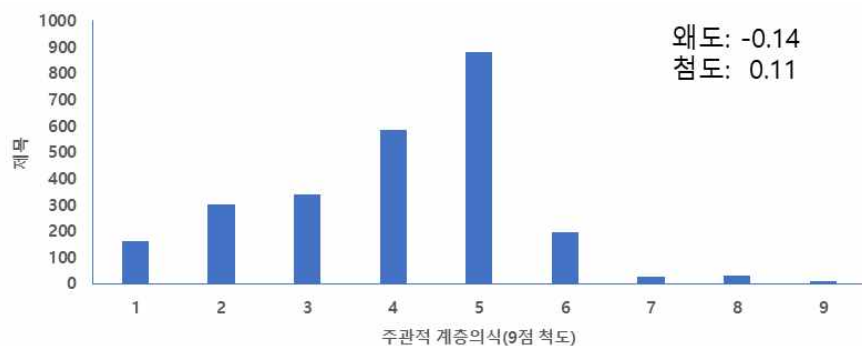
조절변수는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측정하였으며, “당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하의 하(1점)부터 상의 상(9점)까지의 9점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평균이 4.04점으로 중의 중(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502점으로 계산되었다.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표 4-3>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주관적 계층의식	2531	4.04	1.502	1	9

아래의 <그림 4-8>은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중간 수준(4~6점)의 응답 값을 나타냈다. 앞선 삶의 질 변수와는 다르게,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상대적으로 중앙값에 몰려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7, 8, 9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조절변수(주관적 계층의식)의 분포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변수의 속성에 따라 크게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주거특성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세 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결혼 여부 변수는 0(비혼 상태; 미혼 혹은 이혼, 별거, 사별 등) 또는 1(기혼 상태)의 값을 가지며, 0.7의 평균값(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가 70%)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변수의 경우, 최소 19세부터 최대 86세 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8.24, 16.501로 나타났다. 성별 변수에서 평균은 1.51로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남성(성별=1)과 여성(성별=2)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들 중 학력 변수는 평균이 2.98로 계산되어 응답자의 평균학력이 고등학교졸업(학력=3)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06으로 계산되었다. 가구소득 변수의 경우, 평균이 3.92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095로 계산되었다. 경제활동 여부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77과 0.418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경제활동여부=0)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응답자(경제활동여부=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특성관련 요인 중, 자가 여부 변수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0.76과 0.428로 계산되었으며 자가에 거주하는 응답자(자가여부=1)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자가여부=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변수에서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23.43과 19.365로 계산되었으며 지역 크기 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99와 0.896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아래의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4>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
인구 통계학적 요인	결혼 여부	2531	.70	.460	0	1
	연령		48.24	16.501	19	86
	성별		1.51	.500	1	2
사회 경제적 요인	학력	2531	2.98	1.060	1	5
	가구소득		3.92	2.095	1	11
	경제활동여부		.77	.418	0	1
주거 특성 관련 요인	자가여부	2531	.76	.428	0	1
	거주기간		23.43	19.365	0	86
	지역크기		1.99	.896	1	3

## 제 2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 1.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6개 자본영역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 내 세부지표들의 가중평균값을 이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분석에 앞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신뢰도(Reliability)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인 측정을 실시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말한다(김계수, 2010).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크론바하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이며, 통상 그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 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김계수, 2010). 변수 X에 대한 크론바하의 알파 값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서 계산된다.

$$\alpha = \frac{K}{K-1} \left( 1 - \frac{\sum_{i=1}^K \sigma_{A_i}^2}{\sigma_X^2} \right) \quad \text{식 (1)}$$

$\alpha$ : 크론바하의 알파

$X$ : 독립변수 ( $X = A_1 + A_2 + \dots + A_K$ )

$A_i$ : 독립변수  $X$ 를 구성하는  $i$ 번째 세부지표

$K$ :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의 수

$\sigma^2$ : 변수 혹은 지표의 분산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6개의 독립변수들은 크론바하의 알파 값이 0.819에서 0.922로 나타나 신뢰할 만 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4-5>에 정리되어 있다.

<표 4-5>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세부지표		
인적자본	건강상태	9	.896
	의료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		
경제자본	실업자 지원정책	6	.902
	일자리 수준		
	재정규모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자연자본	공기오염도	5	.829
	공원·녹지 공간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주변 소음 정도		
인프라자본	대중교통	6	.819
	도로상태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자연재해 대비		
	치안		
	경찰서비스		
사회자본	지역사회 단체활동	8	.922
	지역사회 유대관계		
	지역사회 교류정도		
	신문/TV의 지역관련 정치정보 제공 수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지역 현안 관련 공청회의 활동 수준		
	자원봉사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문화자본	여가생활수준	6	.883
	문화프로그램 수준(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지역문화공간		
	지역문화재		
	지역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및 문화		

## 2. 타당도 분석

타당도란 요인들이 각각의 측정 항목을 통해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 개념(여기에서는 독립변수)과 측정도구(세부지표)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김계수, 2015; 남궁근, 2010).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수렴 타당도 혹은 집중 타당도는 하나의 개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된 값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표준화 적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다(김계수, 2015; 남궁근, 2010).

$$AVE = \sum_{i=1}^K \lambda_i^2 / [\sum_{i=1}^K \lambda_i^2 + \sum_{i=1}^K Var(e_i)] \quad \text{식 (2)}$$

$\lambda_i$ :  $i$ 번째 세부지표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K$ : 독립변수의 세부지표 수

$Var(e_i)$ :  $i$ 번째 지표 오차항의 분산

통상적으로 표준화 적재량이 0.5 이상이고, 요인의 AVE 값이 0.5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수렴 타당도를 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김계수, 2015). 아래의 <표 4-6>에 정리된 내용은 각 변수의 표준화 적재량, AVE, 유의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화 적재량은 인프라자본의 대중교통 지표를 제외한 모든 세부지표에서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AVE의 경우에는 경제자본(0.608), 사회자본(0.602), 문화자본(0.574)이 0.5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인적자본(0.499), 자연자본(0.496), 인프라자본(0.444)은 0.5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0.5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수렴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6> 타당도 분석 결과 - 수렴타당도

변수		비표준화 적재량	S.E.	p	표준화 적재량	AVE
인 적 자 본	세부지표					
	건강상태	1			0.501	0.499
	의료서비스	1.402	0.058	<.001	0.703	
	노인서비스	1.412	0.059	<.001	0.708	
	장애인서비스	1.494	0.06	<.001	0.749	
	보육서비스	1.577	0.062	<.001	0.79	
	전반적 복지서비스	1.648	0.064	<.001	0.826	
	공공도서관	1.247	0.055	<.001	0.625	
	평생교육서비스	1.39	0.058	<.001	0.697	
	교육환경	1.413	0.059	<.001	0.708	
경 제 자 본	실업자 지원정책	1			0.763	0.608
	일자리 수준	1.046	0.025	<.001	0.798	
	재정규모	1.098	0.025	<.001	0.838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규모	0.969	0.025	<.001	0.739	
	전반적 지역경제 상황	1.056	0.025	<.001	0.806	
	지역 거주에 소요되는 생활비	0.952	0.025	<.001	0.727	
자 연 자 본	공기오염도	1			0.619	0.496
	공원·녹지 공간	1.183	0.041	<.001	0.732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1.062	0.04	<.001	0.657	
	골목과 거리의 청결도	1.339	0.043	<.001	0.828	
	주변 소음 정도	1.079	0.04	<.001	0.668	
인 프 라 자 본	대중교통	1			0.473	0.444
	도로상태	1.227	0.061	<.001	0.58	
	인터넷 무료제공 공공장소	1.068	0.057	<.001	0.505	
	자연재해 대비	1.527	0.068	<.001	0.722	
	치안	1.745	0.074	<.001	0.825	
	경찰서비스	1.696	0.073	<.001	0.802	
사 회 자 본	지역사회 단체활동	1			0.716	0.602
	지역사회 유대관계	1.101	0.029	<.001	0.788	
	지역사회 교류정도	1.148	0.028	<.001	0.822	
	신문/TV의 정치정보 제공 수준	1.042	0.029	<.001	0.746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1.183	0.028	<.001	0.847	
	현안 관련 공청회의 활동 수준	1.119	0.029	<.001	0.801	
	자원봉사활동	0.94	0.029	<.001	0.673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1.117	0.029	<.001	0.799	
문 화 자 본	여가생활수준	1			0.615	0.574
	문화프로그램 수준	0.943	0.037	<.001	0.58	
	지역문화공간	1.325	0.041	<.001	0.816	
	지역문화재	1.385	0.041	<.001	0.853	
	지역축제	1.304	0.04	<.001	0.803	
	지역 고유의 전통 및 문화	1.35	0.041	<.001	0.831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차별성을 지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항목으로, 서로 다른 영역을 측정할수록 높은 판별 타당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남궁근, 2010). 일반적으로, 각 요인 간 상관계수가 0.9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개별 요인의 AVE 값이 다른 요인과의 상관계수의 제곱(즉, 결정계수) 값보다 큰 경우에 판별 타당성을 가진다(김계수, 2010). <표 4-7>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AVE의 값이 결정계수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일부 요인에 있어서 결정계수가 AVE의 값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판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0)</sup>

<표 4-7> 타당도 분석 결과 - 판별타당도

변 수	1	2	3	4	5	6
1 인적자본	0.499*					
2 경제자본	0.569	0.608*				
3 자연자본	0.205	0.218	0.496*			
4 인프라자본	0.354	0.329	0.482	0.444*		
5 사회자본	0.237	0.319	0.335	0.484	0.602*	
6 문화자본	0.349	0.430	0.284	0.299	0.365	0.574*

주: 대각선 성분은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를, 대각선 아래 성분은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즉, 결정계수)을 의미함.

10) 인적자본의 AVE가 0.499로,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의 상관계수 제곱 값 0.569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인프라자본의 AVE가 0.444로 자연자본과 인프라자본의 상관계수 제곱 값 0.482, 사회자본과 인프라자본의 상관계수 제곱 값 0.484보다 작게 나타났다.

### 제 3 절 상관분석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계층의식,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들이 서로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그 크기와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 자본영역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들은 각 세부지표의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를 사용한 가중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6개의 독립변수(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모두가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질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나이, 자가여부, 거주기간이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력, 경제활동여부, 지역크기는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부, 성별, 월가구소득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독립변수인 6개 자본영역과 약한 상관관계(상관관계가 0.031에서 0.105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자본을 제외한 5개 자본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관계에서는 월가구소득과 학력이 각각 0.485, 0.328의 상관관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 4-8>과 같다.

<표 4-8> 상관분석 결과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종속변수	1 삶의 질	1																
	2 인적자본	.425	1															
독립변수	3 경제자본	.442	.688	1														
	4 자연자본	.462	.384	.406	1													
	5 인프라자본	.527	.569	.540	.594	1												
	6 사회자본	.485	.454	.526	.516	.634	1											
	7 문화자본	.440	.572	.615	.482	.541	.572	1										
조절변수	8 계층의식	.134	.080	.105	.064	.031	.067	.061	1									
통제변수	9 기혼여부	.027	-.002	.004	.041	.008	.033	-.023	.097	1								
	10 나이	.137	.027	.027	.146	.168	.170	.075	-.219	.401	1							
	11 성별	.035	.027	.037	.014	.030	.034	.038	-.037	.056	.063	1						
	12 학력	-.127	-.001	-.015	-.133	-.154	-.154	-.089	.328	-.062	-.626	-.159	1					
	13 월가구소득	.038	.068	.076	-.050	-.034	-.055	-.011	.485	-.015	-.416	-.046	.457	1				
	14 경제활동	-.046	-.043	-.020	-.011	-.075	-.005	-.008	.099	.155	-.040	-.167	.134	.144	1			
	15 자가여부	.139	.005	.038	.111	.073	.102	.065	.117	.139	.232	.017	-.158	.066	-.033	1		
	16 거주기간	.138	-.024	.002	.157	.130	.181	.088	-.126	.136	.536	-.025	-.501	-.269	.028	.365	1	
	17 지역크기	-.093	.135	.045	-.213	.027	-.201	-.055	.042	-.042	-.196	.008	.242	.243	-.091	-.201	-.375	1

주: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유의확률이 <0.05 임을 의미함.

## 제 4 절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여섯 개의 자본영역과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본영역 평가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회귀모형에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영향을 확인한다. 둘째, 독립변수인 여섯 개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 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며 주관적 계층의식의 회귀계수를 확인한다. 넷째,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항들을 계산하여 모형에 투입하고, 설명력의 변화 및 회귀계수를 확인한다. 이러한 각 단계별 회귀모형을 간단한 식으로 나타낸 내용은 아래와 같다.

$$\hat{Y} = b_0 + b_3 W \quad \text{식 (3)}$$

$$\hat{Y} = b_0 + b_1 X + b_3 W \quad \text{식 (4)}$$

$$\hat{Y} = b_0 + b_1 X + b_2 Z + b_3 W \quad \text{식 (5)}$$

$$\hat{Y} = b_0 + b_1 X + b_2 Z + b_{1,2} XZ + b_3 W \quad \text{식 (6)}$$

(Y: 종속변수, X: 독립변수, Z: 조절변수, W: 통제변수)

총 네 단계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있어서 구체적인 통계적 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F검정을 통해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각 변수별 회귀계수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2단계, 3단계, 4단계 모형은 전 단계 모형에서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므로, 결정계수( $R^2$ )의 변화량과 그에 대한 F검정을 통해 설명력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한다.

<표 4-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변 수		B	S.E.	$\beta$	p	B	S.E.	$\beta$	p	B	S.E.	$\beta$	p	B	S.E.	$\beta$	p
독립변수	인적자본					.119	.032	.089	<0.001	.119	.032	.089	<0.001	.120	.032	.090	<0.001
	경제자본					.114	.029	.094	<0.001	.111	.029	.091	<0.001	.104	.029	.086	<0.001
	자연자본					.189	.027	.146	<0.001	.184	.027	.142	<0.001	.175	.027	.135	<0.001
	인프라자본					.282	.034	.209	<0.001	.284	.033	.210	<0.001	.291	.033	.215	<0.001
	사회자본					.158	.029	.128	<0.001	.151	.029	.122	<0.001	.154	.029	.125	<0.001
	문화자본					.077	.028	.062	.0061	.076	.028	.061	.0068	.074	.028	.060	.0081
조절변수	계층의식									.091	.019	.091	<0.001	.087	.019	.087	<0.001
상호작용	계층*인적													.042	.030	.031	.1699
	계층*경제													-.070	.029	-.057	.0162
	계층*자연													-.046	.026	-.035	.0747
	계층*인프라													.042	.031	.031	.1829
	계층*사회													-.016	.027	-.013	.5660
	계층*문화													-.011	.026	-.009	.6727
통제변수	기혼여부	-.032	.023	-.032	.1511	-.007	.018	-.007	.7177	-.017	.018	-.017	.3632	-.016	.018	-.016	.3815
	나이	.116	.030	.116	.0001	.038	.025	.038	.1232	.042	.025	.042	.0927	.044	.025	.044	.0792
	성별	.017	.020	.017	.4026	.005	.016	.005	.7704	.005	.016	.005	.7692	.004	.016	.004	.8217
	학력	-.069	.028	-.069	.0130	-.039	.023	-.039	.0843	-.055	.023	-.055	.0166	-.052	.023	-.052	.0235
	월가구소득	.148	.023	.148	<0.001	.097	.019	.097	<0.001	.061	.020	.061	.0031	.063	.020	.063	.0020
	경제활동	-.050	.021	-.050	.0140	-.030	.017	-.030	.0720	-.030	.017	-.030	.0745	-.030	.017	-.030	.0756
	자가여부	.067	.022	.067	.0018	.051	.018	.051	.0038	.043	.018	.043	.0137	.042	.018	.042	.0178
	거주기간	.036	.026	.036	.1634	.011	.021	.011	.5920	.011	.021	.011	.5967	.012	.021	.012	.5852
	지역크기	-.068	.022	-.068	.0016	-.050	.019	-.050	.0086	-.044	.019	-.044	.0194	-.047	.019	-.047	.0129
$R_{adj}^2$		.050				.371				.377				.379			
F		15.72***				100.5***				96.55***				71.17***			
$\Delta R^2$		.053				.322				.006				.004			
Change in F		15.72***				218.4***				23.80***				2.55*			

주1) \*p<0.05; \*\*p<0.01; \*\*\*p<0.001

주2) 음영으로 표시된 변수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위의 <표 4-9>는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며, 계산된 각 변수의 계수와 모형의 전체적인 통계량을 요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독립변수(가설 1)와 조절변수(가설 2)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1. 1단계 모형분석

1단계 모형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형1에 대한 F값은 15.72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9개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1의 결정계수( $R^2$ ) 값은 0.053, 수정된 결정계수( $R_{adj}^2$ ) 값은 0.050으로 나타나 삶의 질 변수의 약 5%의 변동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월가구소득, 나이, 자가 여부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월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력, 지역 크기, 경제활동여부 변수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규모가 큰 특별·광역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서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부, 성별, 거주기간 변수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2단계 모형분석: 가설 1의 검증

2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여섯 개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 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질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2단계 회귀모형에 대한 F값은 100.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의 결정계수( $R^2$ ) 값은 0.375, 수정된 결정계수( $R_{adj}^2$ ) 값은 0.371로 계산되어 모형2가 종속변수인 삶의 질을 약 37% 정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모형의 변수별 유의성의 경우, 여섯 개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자본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0.209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자연자본이 0.146, 사회자본이 0.128, 경제자본이 0.094, 인적자본이 0.089, 문화자본이 0.062의 표준화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값이 동일할 때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의 순서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섯 개의 독립변수들이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역사회의 자본에 대한 높은 평가가 주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은 지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 뿐 만 아니라, 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 중 일부 변수들도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먼저 월가구소득 변수가 0.097의 표준화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자가여부 변수가 0.051, 지역크기 변수가 -0.050의 표준화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월가구소득, 자가여부 변수는 양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월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크기 변수의 경우, 음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크기가 작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단계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던 나이, 학력, 경제활동 변수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통제변수인 기혼여부, 성별, 거주기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 3. 3단계 모형분석

3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만이 포함된 2단계 모형에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를 투입하였다. 조절변수의 투입결과, 모형 3에 대한 F값은 96.55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절변수가 투입됨으로써 증가된 결정계수( $R^2$ )가 0.006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F검정의 검정통계량 값이 24.80으로 나타나 모형 2에서 모형 3으로의 변화는 유의수준 0.05하에서 유의한 변화로 확인되었다. 모형 3의 결정계수는 0.381, 수정된 결정계수는 0.377로 나타나 모형 3이 종속변수인 삶의 질을 약 3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의 변수별 유의성은 2단계 모형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표준화계수 값은 인프라자본이 0.210, 자연자본이 0.142, 사회자본이 0.122, 경제자본이 0.091, 인적자본이 0.089, 문화자본이 0.06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모형 2에서의 경우와 그 순서가 같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모형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절변수(주관적 계층의식)는 0.091의 표준화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계수 0.091은 독립변수 중 경제자본의 표준화계수 값과 동일한 값으로,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경제자본 변수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3에서도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월가구소득 변수가 0.061, 학력이 -0.055, 지역크기가 -0.044, 자가여부가 0.043의 표준화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월가구소득, 자가여부, 지역크기 변수는 앞선 모형 2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새로



게 학력 변수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변수의 표준화계수 값은  $-0.055$ 로, 응답자의 학력수준과 삶의 질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4단계 모형분석: 가설 2의 검증

4단계 모형에서는 가설 2에 해당하는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즉, 각각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하여 여섯 개의 상호작용항을 계산하였으며, 이 상호작용항들을 모형 3의 변수들에 추가하여 투입함으로써 주관적 계층의식과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가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형 4에 대한 F검정 검정통계량 값은  $71.17$ 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여섯 개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됨으로써 증가된 결정계수는  $0.004$ 로 계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F검정의 검정통계량 값이  $2.55$ 로 나타나 모형 3에서 모형 4로의 변화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유의한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4의 결정계수는  $0.384$ , 수정된 결정계수는  $0.379$ 로 계산되었으며, 본 연구의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 4는 삶의 질 변수를 약  $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여섯 개의 독립변수들은 앞선 모형 2, 모형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각 변수의 표준화계수는 인프라자본이  $0.215$ , 자연자본이  $0.135$ , 사회자본이  $0.125$ , 인적자본이  $0.090$ , 경제자본이  $0.086$ , 문화자본이  $0.060$ 으로 계산되었다. 모형 3에서 추가되었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또한  $0.087$ 의 표준화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가설 2를 확인하기 위한 여섯 개의 상호작용항은 일부 경우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독립변수 중 경제자본과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항이  $-0.057$ 의 표준화계수 값과  $0.016$ 의 유의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되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자연자본의 경우

에서는 유의확률이 0.075로 계산되어 유의수준 0.0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독립변수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 Cohen(1983; 양오석·박준민, 201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조절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상승조절효과(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모두 같은 방향인 경우)이며 두 번째는 완충조절효과(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기울기 부호가 반대이며 상호작용변수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세 번째는 대립조절효과(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기울기 부호가 같고, 상호작용항의 기울기 부호가 그 반대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경제자본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항이 음의 부호를 갖는 것은 양자 간의 관계가 대립조절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며, 조절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나머지 다른 변수의 값이 일정할 때, 조절변수인 주관적 계층의식이 증가하면 독립변수인 경제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자본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독립변수들에서는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므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 4의 경우에서도 일부 통제변수들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의 회귀계수 값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제변수는 모형 3의 경우와 동일한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항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할 때에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유의해야한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때는 공차한계(tolerance) 또는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을 확인하며, 통상적으로 VI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심각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VIF는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VIF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독립변수들의 회귀계

수에 대한 표준오차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홍세희·정송, 2014). 아래의 식에서,  $R_i^2$ 가 0.9 이상인 경우에는 VIF가 10을 초과하게 된다.  $R_i^2$ 가 0.9 이상이라는 것은  $i$ 번째 독립변수가 나머지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90%이상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IF_i = \frac{1}{1 - R_i^2} \quad \text{식 (7)}$$

$R_i^2$ :  $i$ 번째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나머지 독립변수들로 회귀분석을 진행했을 때의 결정계수 값.

아래의 <표 4-10>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VIF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4-10>에 따르면 VIF의 최대값은 1단계 회귀분석에서 2.472로, 2단계 회귀분석에서 2.499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2.500으로, 4단계 회귀분석에서는 2.508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므로 각 단계별 VIF값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10> 다중공선성 진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변수		VIF	VIF	VIF	VIF
독립변수	인적자본		2.267	2.267	2.277
	경제자본		2.337	2.338	2.360
	자연자본		1.789	1.792	1.810
	인프라자본		2.482	2.482	2.494
	사회자본		2.149	2.154	2.164
	문화자본		2.055	2.055	2.074
조절변수	계층의식			1.406	1.418
상호작용	계층*인적				2.173
	계층*경제				2.236
	계층*자연				1.801
	계층*인프라				2.471
	계층*사회				2.240
	계층*문화				1.996
통제변수	기혼여부	1.350	1.357	1.374	1.377
	나이	2.472	2.499	2.500	2.508
	성별	1.073	1.075	1.075	1.077
	학력	2.069	2.077	2.118	2.133
	월가구소득	1.450	1.463	1.696	1.701
	경제활동	1.119	1.125	1.125	1.127
	자가여부	1.242	1.244	1.254	1.258
	거주기간	1.807	1.817	1.818	1.828
	지역크기	1.238	1.432	1.438	1.441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자본 영역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와 주민들의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와 삶의 질 간의 관계가 주민 개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ee et al.(2014)이 제안한 커뮤니티 웰빙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자본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자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Kee et al.(2014) 모형의 여섯 가지 자본영역은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1-1, 1-2, 1-3, 1-4, 1-5, 1-6은 모두 채택되었다. 그 영향력의 절대적인 크기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 등의 순서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인적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도 모두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투입한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또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신승배, 2015; 양재진 외, 2016; 이연경·이승중, 2017)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크기는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의 영향력 크기보다는 작았으나 인적자본과 경제자본의 영향력 크기와는 유사했고 문화자본의 영향력 크기보다는 더 큰 값을 보였다. 유의할 점은,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의 영향력 크기가 월가구소득, 자가여부와 같은 객관적 계층을 나타내는 변수의 영향력 크기보다 컸다는 점이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포함된 모형 3과 모형 4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로부터 계층의식이라는 변수는 객관적 계층을 대변하는 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자본 영역에 대한 평가와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안된 연구가설 중 일부만이 채택되었다(가설 2-2). 독립변수 중, 경제자본 변수만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상호작용항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아 해당 연구가설들이 기각되었다(가설 2-1, 2-3, 2-4, 2-5, 2-6). 경제자본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과의 상호작용항이 음수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자본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계층의식은 대립조절효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응답자들이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경제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자본에 대한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영향)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의 내용은 아래의 <표 5-1>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표 5-1> 연구가설 검증결과

구분	가 설		채택여부
	번호	내 용	
직접 효과	1-1	지역사회의 인적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지역사회의 경제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3	지역사회의 자연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4	지역사회의 인프라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5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6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절 효과	2-1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적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2	주관적 계층의식은 경제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주관적 계층의식은 자연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주관적 계층의식은 인프라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	주관적 계층의식은 사회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6	주관적 계층의식은 문화자본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제 2 절 연구의 의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래로 20년이 넘게 지난 현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에 의해 주민들의 지지를 재확인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주민들에게 한 단계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형의 독립변수로 활용했던 ‘주민들이 내리는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해 내리는 평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지역사회 인프라자본(안전, 교통, 정보서비스 등)과 자연자본(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이 일관되게 삶의 질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회자본,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등이 서로 다른 크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삶의 질 영향요인 구조는 본 연구와 같이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더 나아가 개별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행하여 해당 공동체의 삶의 질 영향요인 구조를 밝히는 것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전국 단위의 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의 독특한 삶의 질 영향요인들이 개별 커뮤니티 수준의 연구에서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접근 방식은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지표들(독립변수)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통제변수)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은 소득, 학력, 자가여부 등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의 크기도 월가구소득 변수의 영향력 크기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가 주민 삶의 질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는 선행연구(최인철, 2014; 이연경·이승중, 2017)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집합적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자본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이 경제자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은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자본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사회의 경제자본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집단 보다는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더 효과적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층의식이 낮은 집단에게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자본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 또한 함께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어떤 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연구 상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계와 향후 연구가 지향해야할 방향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독립변수로 사용된 개별 영역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각각의 자본영역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상태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본 기반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 확보로 인해 인프라자본, 자연자본과 같은 다른 자본영역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개별 변수 차원에서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 또한 독자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의식 변수는 또 하나의 종속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은 직업, 소득, 교육수준, 주거형태 등이 있는데 (Jackman & Jackman, 1973; 장상수, 1996; 신광영, 1997; 김병조, 2000; 김진욱·정의철, 2004), 보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주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보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들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서 주관적 계층의식 자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의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전국의 커뮤니티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 2,700여명 이라는 표본의 규모는 전국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령, 거주지 등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특정한 커뮤니티에 집중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더 큰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민성. (2015). 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 사회신뢰와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강월석·양해술. (2012). 스마트융합시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1): 29-38.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권정윤. (2017). 물질소비와 경험소비에서 SNS 상의 사회적 비교가 소비자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금현섭·백승주.(2011).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61-86.
- 기영화·김승현·김남숙.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기영화·서인석·남채봉. (2014). 커뮤니티 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지방행정연구」, 28(4): 39-71.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계수. (2015). 「R-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 241-268.
- 김상곤·김성중. (2008). 지역주민의 행복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5: 325-351.

- 김진욱·정의철.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계층 변화. 「노동경제논집」, 27(2): 91-115.
- 남궁근. (2010).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 박종선·황덕순. (2015).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행복하세요? - 상대적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문화연구」, 18(3): 1-23.
- 배정현. (2014). 삶의 만족과 정부의 질. 「행정논총」, 52(1): 247-270.
- 서인석·기영화·우창빈. (2015).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서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 「한국행정연구」, 24(4): 29-66.
- 서인석·기영화·이승중. (2016).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 -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요인 및 지표의 활용. 「한국행정연구」, 25(1): 49-75.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성종상. (2014). 녹색-건강 위상학: 그린을 통한 건강·행복 증진. 「환경논총」, 53: 71-79.
- 송건섭. (2007). 지역수분별 주민복지와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1(3): 35-52.
- 송건섭·김영오·권용현. (2008).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2(4): 225-247.
- 신광영. (1997). 계급과 정체성의 정치. 「경제와사회」, 35: 34-50.
- 신승배. (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41(2): 183-208.
- 양오석·박준민. (2014). 경영연구를 위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검증 방법에 대한 엄밀성 제고. 「한국경영교육학회」, 29(4): 249-291.
- 양재진·이호연·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 오혁제. (2009). 중산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오현복. (2010). 사회경제적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및 건강만족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우명숙·김길용·조병희·유명순. (2013). ‘좋은 사회’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가 - 5개국 개인 삶의 만족과 사회갈등해소역량. 『국제·지역연구』, 22(2): 87-120.
- 우은주. (2013).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17(3): 209-225.
- 윤인진·김상돈. (2008).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고급여가활용의 매개효과분석. 『도시행정학보』, 21(2): 153-185.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
-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70: 111-140.
- 이승철. (2014). 구미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과 향상 방안 - 종단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8(3): 109-133.
-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연경·이승중.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1): 1-39.
- 이병훈·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111-140.

- 이재경. (1992). 가족과 사회계층. 『가족학논집』, 4: 115-133.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 임보영·마강래. (2016).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집계적 자료와 비집계적 자료의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89-104.
- 임재영·구교준·최슬기. (2016). 불평등과 행복: Sen의 역량이론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행정논총』, 54(3): 175-198.
-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구.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9: 180-212.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장인수. (2013). 고령인구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실증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인수·김홍석. (2016). 서울시민들의 주관적 건강 행복지수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6(3): 85-118.
- 정명은·김미현·장용석. (2014). 서울시민의 행복과 사회자본 관계 분석-행복한 시민, 따뜻한 지역공동체. 『서울도시연구』, 15(1): 163-186.
- 정보람·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30-51.
- 조돈문. (1994).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의 물질 기초 - 한국, 스웨덴, 미국의 비교연구. 『경제와사회』, 23: 45-81.

- 조선일보. “중간으로 산다는 것.” 2017.9.19. (2017년 9월 19일 검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82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826.html))
- 차중천. (1987). 지역주의가 한국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민의 출신지역별 지위획득과 사회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 69-91.
- 최말옥·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명민. (2010). 결혼행복감의 결정요인 분석: 소득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9: 85-113.
- 최영출. (2015). 커뮤니티 웰빙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관계. 『한국비교정부학보』, 19(2): 71-91.
- 최인철.(2014).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강원택·김병연·안상훈이 재열·최인철(편).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경기: 21세기북스.
- 한준·김석호·하상응·신인철.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세희·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 외국 문헌

- Blomquist, G., Berger, M. & Hoehn, J.(1988). New Estimates of Quality of Life in Urban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78: 89-10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York.
- Catalano, G., & Sartori, D. (2013). Infrastructure investment long term contribu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wellbeing. St. Louis: IDEAS Working Paper Series from RePEc.
- Chanan, G. (2002).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 measure of Community: A Study for the Active Community Unit and Research*. London: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3): 319-349.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hen, D. A., Farley, T. A., & Mason, K. (2003). Why is poverty unhealthy? Social and physical mediators. *Social Science & Medicine*, 57(9): 1631-1641.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Napa Scollon, C.,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5: 187-219.
- Ewing, R., Meakins, G., Hamidi, S., & Nelson, A. C. (2014).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rawl and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morbidity - Update and refinement. *Health and Place*, 26: 118-126.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 Weber, 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New York, NY: Academic Press, 98-125.
- Jackman, M., & Jackman, R.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569-582.
- Joaquina, P. (2007). Class Id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Well-being and Social Mobility,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2(3): 165 - 188.
- Kane, R. A. (2001). Long-Term Care and a Good Quality of Life: Bringing Them Closer Together. *The Gerontologist*, 41(3): 293 - 304.
- Kee, Y., Kim, Y., & Phillips, R. (2014). Community Well-Being and Learning in Communities. Springer Briefs Series.
- Kruger, P. (2011). Wellbeing – The Five Essential Elem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6(3): 325-328.
- Kusel, J., & Fortmann, L. (1991). *Well-Being in Forest-Dependent Communities, Vol. 1*. Forest and Rangela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 Berkeley, California.

- Lee, S. J., & Kim, Y. (2014).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Community Well-being. In S. J. Lee, Y. Kim, & R. Phillips (eds.).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Conceptions and Applications*. Springer.
- Mammen, S. (1980), Perceived adequacy of income: an element of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 McHardy, M., & O'Sullivan, E. (2004). *First Nations Community Well-Being in Canada: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CWB), 2001*.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Indian and Northern Affairs Canada
- Mogilner, C., Aaker, J., & Kamvar, S. (2012). How Happiness Affects Cho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2): 429-443.
- Myers, D.(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Urban Affairs Quarterly*, 23(1): 108-125.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 Oishi, S., Kesebir, S., & Diener, E. (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1095-1100.
- Riddick, C. C. (1986). Leisure Satisfaction Precurs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4): 259-265.
- Schalock, R. L. (2004). The concept of quality of life: what we know and do not know.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8(3): 203-216.
- Sirgy, M. J., Gao, T., &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mits, J., & Hoekstra, 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1-106.
- Uysal, M., Perdue, R., & Sirgy, M. J. (2012). *Handbook of Tourism and Quality-of-Life Research: Enhancing the Lives of Tourists and Residents of Host Communities (Vol.1)*. Springer Verlag.
- Vanneman, R., & Cannon, L. (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Vanneman, R., & Pampel, F. C. (197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and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3): 422-437.
-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 Netherlands: Erasmus University of Rotterdam.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 - 39.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 Research*, 58(1): 33-46.
- WHO(1997).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World Health Organization.
- Wolf, A. (2012). Intersubjective concepts and measures of wellbeing for public polic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llbeing and Public Policy*, Wellington, 13-15 June. [PowerPoint slides].

## Abstract

# The Effect of Assessment of Community's Capital Factors on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consciousness

Choi, Min-h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on factors which determin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nd sever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have been found to influence quality of life. Identifying the causal structure of quality of life can help local governments on decision makings regarding efficient budget distribution, and ultimately it is very important on promoting welfare of their constituents.

This study use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Kee et al.(2014) to analyze impacts of residents' assessment of the community's capital domains(assessment of human capital, economic capital, natural

capital, infrastructure capital, social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The study also analyzed the impact of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on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and also analyzed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assessments of capital domains and class consciousness.

The study performed a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a countrywid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2015. The survey includes 2723 observations, which were collected in 27 different local communities. A statistical package R 3.4.1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Statistical analysis proceeded in the order of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fter perform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assessments of six capital domains all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When the socioeconomic variables known to affect quality of life were controlled, variables were shown to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order of infrastructure capital, natural capital,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economic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It turned out that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 moderating variable,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It was found that class consciousness has a moderating effect on quality of life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the assessment of economic capital. In other words, the economic capital of local community does not have strong impact on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who showed higher class consciousness compared to the other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y identify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that could

affect quality of life, it provides a basis for judgments on which factors to focu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each local government. This policy implication could be used even more usefully when it is conducted at individual community(or local government) levels, as well as at national level. Secondly,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quality of life, one can note that understanding class consciousness is as important as understanding the socioeconomic variables. Third, in regard to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consciousnes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reach their goals, they need to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each constituent group with different class consciousness level.

***Keywords* :** Quality of life, Well-being,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Class consciousness, Moderating effec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 - 24342